

루이스 영어회화 시리즈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놀 놀던 자리에 놓아두고 정리할 줄 모른다. 아이에게 올바른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장난감을 제자리에 정리하라고 말하고 싶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이럴 땐 "Put your toys back." 이라고 하면 된다. 비슷한 유형의 문장을 더 소개한다. 한 문장을 20번씩 반복해 읽으면 모르는 사이에 영어 실력이 쑥쑥 늘어날 것이다.

1. 이것을 치워주세요.
Put this away.

2. 네 장난감을 도로 갖다 놔라.
Put your toys back.

3. 이 쓰레기를 밖으로 내놓으세요.
Put out this garbage.

4. 이 카펫을 들어라.
Lift this carpet.

5. 이 박스를 갖다 버려.
Throw this box away!

6. 가서 어머니를 데려오세요.
Go pick up my mother.

7. 문을 열어라!
Open the door!

8. 열어 놔둬!
Leave it open!

9. 테이프를 이 박스를 봉해라!
Tape this box!

10. 가서 수금해와.
Go get the balance.

➔ 결과를 보장하는 루이스 영어교실 제공
문의전화: (213) 284-4725 (CD, 교재)
905 S. Euclid St.#208, Fullerton, CA 92832

LPGA, 다음 달 말 무관중 재개

코로나19로 멈춰 선 미여자프로골프(LPGA) 투어가 다시 돌아온다.

18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지난 2월 호주오픈을 끝으로 중단된 LPGA 투어는 전날 '7월 31일 오하이오주 톨레도에서 '드라이브온 챔피언십'으로 2020 시즌 일정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투어 대회가 다시 열리는 건 약 5개월 만으로 무관중 경기다. 이 대회 다음주인 8월 6일부터는 같은 주의 실베이니아에서 나흘간 마라톤 클래식도 열린다. 이 대회에는 갤러리를 입장시키기로 했다.

마이크 완 LPGA 커미셔너는 "최근 마이크 드윈 오하이오 주지사의 승인을 받아 코스에서 갤러리의 관람이 가능해졌다."고 했다.

그러나 유관중이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LPGA



▲ 박인비(위), 고진영(아래)

투어 대회의 관중입장 여부는 연방정부가 아니라 각 대회 개최지가 있는 각 주정부의 결정에 달려 있는데, 주별로 코로나19 상황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마라톤 클래식 이후엔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오픈(13일)과 브리티시오픈(20일)이 2주 연속 이어진다. 그러나 자가 격리 면제 등을 포함한 출입국 절차가 간소화돼야 정상 개최될 수 있는데, 이 같은 여부는 이달 말 무렵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머물고 있는 LPGA 선수들도 복귀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다만 박인비(32)와 고진영(25)은 '재개막전'에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 같은 기간 둘의 후원사 대회인 제주삼다수 대회와 겹치기 때문이다. 둘의 매니지먼트 측은 "8월 일정은 LPGA 투어 영국 대회 개최 여부 등에 따라 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윌리엄스 "US오픈 출전하겠다"

세리나 윌리엄스(9위·미국)가 오는 8월 30일 개막 예정인 US오픈 테니스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US오픈을 개최하는 미국테니스협회(USTA)는 이날 "빨리 올해 US오픈에 뛰고 싶다. USTA가 모든 이들의 안전을 위해 준비를 잘한 것 같다."고 말하는 윌리엄스의 영상 메시지를 공개했다.

올해 US오픈은 8월 31일부터 2주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5월 프랑스오픈이 9월로 미뤄지고, 6월 윌블던은 취소되면서 US오픈 개최 가능성도 불투명했다. 그러나 전날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 지사가 "올해 US오픈이 관중 없이 열릴 것"이라고 밝히면서 원래 일정대로 올해 US오픈이 열리게 됐다.



▲ 세리나 윌리엄스

최근 2년 연속 US오픈 여자 단식에서 준우승한 윌리엄스는 "팬들이 그립다."며 "빨리 뉴욕에 가서 재미있는 경기를 하고 싶다."고 의욕을 내보였다. 윌리엄스는 메이저 대회 단식 우승을 한 번 더 할 경우 마거릿 코트(은퇴·호주)가 보유한 메이저 대회 단식 최다 우승 기록(24회)과 동률을 이룬다.

반면 시모나 할레프(2위·루마니아)는 "올해 US오픈에 출전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앞으로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지금 계획이 바뀔 가능성은 있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남자프로테니스(ATP) 단식 세계 랭킹 1, 2위인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와 라파엘 나달(스페인)도 올해 US오픈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 대회에 얼마나 많은 톱 랭커들이 US오픈에 출전할지는 미지수다.



사장님,
칭내세요!
대박나게 도와 드릴게요.

대박사인

배너, 메뉴보드, 전단, 명함 등
각종 실내외 사인부터
광고, 디자인까지-

Tel. (323) 641-7907

1313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